

책의 영향 평가

책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불필요한 일이다. 모두들 관습적으로 또는 직감적으로 이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된다. 오늘의 출판과 독서의 경향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데올로기서적들에 대해서 특히 이 견해는 자주 쓰인다. 마르크스주의 도서들과 북한서적들에 있어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은 대학생들의 일부에 제한돼 있고' 또 '그 부수들도 1천부에서 2천부선에 이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라는 관점에 의해 그 정도 책들이 무슨 힘을 갖겠느냐는 논지가 또한 우리에게서 보편화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이 견해야말로 책의 영향과 그 힘에 대한 상당한 오해라고 믿고 있다. 하기는

오해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자기도피일 수도 있다. 그것이 만일 책의 영향의 막강한 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이 또한 막강해질 것이므로, 일찌감치 별것 아니라는 자기기준을 만들고 이에 의지해 위로를 받는 것이 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해의 기본적인 오류는 책의 한권씩을 분리해 본다는 시각에 있다. 책의 힘이란 물론 구체적으로 한권 한권씩을 어느 한 독자가 실질적으로 읽고 또 읽을 것을 믿기 시작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보다 큰 힘은 읽지는 않지만 그 여권을 함께 제목만을 보더라도 그것이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책의 힘을 상징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있다. 한 개인의 서가라는 것이 꼭 읽은 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읽어

야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측면이 책의 문화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오늘의 책의 영향력은 이데올로기서적에 대한可否나正誤의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의 중심적 책의 내용은 시집과 수필집과 이데올로기서적이라는 3항목에 제한돼 있다. 이외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최소한의 분량에만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분량들은 또 좀처럼 변화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시집은 예술적 완성도와 무관하고, 수필집은 진정한 교양적 사상이나 문장의 정체성들과 무관하고, 또 더욱 이데올로기서적은 어느 한쪽 성향에 집중적이며 권위적으로 헤게모니의 장악화를 이루고 있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 책의 영향이란 이 사회의 일상적 보편적 삶에 어떤 사상화를 뜻하는 것인가를 좀더 포괄적으로 평가해 보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책의 힘에 가장 행복한 자리는 평균적 교양의 분야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출판저널

통권 제 39호 / 1989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鎭肅
편집인 — 李起雄
인쇄인 — 李亨秀
편집주간 — 李勝弼
편집자장 — 康鐵柱
기자 — 吳愛里 金芝媛 車昌龍 洪賢淑
디자인 — 尹貞子

포도디렉터 — 朱明德
사진 — 全惠敏

업무·광고 — 梁承杓 崔兌源
洪先基 金依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와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광일사식

출판저널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내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康賢斗 | 康泓彬 | 權德周 | 權寧珉 |
| 權五聖 | 金炳翼 | 金聖坤 | 金容雲 |
| 金禹昌 | 金仁會 | 金治洙 | 盧命完 |
| 潘星完 | 邊衡尹 | 徐洸善 | 徐淵昊 |
| 成完慶 | 宋相庸 | 慎錫夏 | 安秉永 |
| 安輝滂 | 吳光洙 | 劉載天 | 陸明心 |
| 尹錫範 | 李康洙 | 李康淑 | 李瑞薰 |
| 李光周 | 李萬烈 | 李明賢 | 李相日 |
| 李元薇 | 李重漢 | 李姬載 | 張會翼 |
| 鄭用琢 | 鄭雲瑛 | 鄭元植 | 鄭鎮弘 |
| 鄭丙圭 | 曹大鉉 | 趙玉羅 | 陳德奎 |
| 車河淳 | 崔成眞 | 崔元植 | 崔載賢 |
| 崔鐘庫 | 韓相震 | 韓勝憲 |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20회분을 계속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20회분 단위로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과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증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본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독자서평 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제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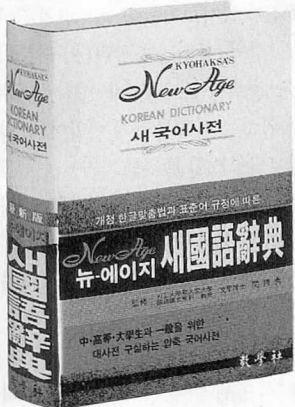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5월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 내)으로 보내주시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41호(5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모두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敎學社에서 펴낸 「뉴 에이지 新國語辭典」(정가 9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문제 1

1918년 9월 張斗微의 주재로 창간된 「泰西文芸新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정기 간행물로서 유명한가.

1. 주간지
2. 월간지

3. 계간지

문제 2

조선 영조때의 歌人 南坡 金天澤이 역대의 시조 1천여수를 수집하여 편찬한 시조집은?

1. 靑丘永言
2. 海東歌謠
3. 歌曲源流

문제 3

영국의 작가 몸(W.S. Maugham)은 프랑스 화가 고갱을 모델로 한 작품을 발표했다.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지는 이 작품의 이름은?

1. 인간의 굴레
2. 과자와 맥주
3. 달과 6펜스

문제 4

「80일간의 세계일주」 「해저 2만리」 등을 발표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탐구와 모험심을 길러주는데 기여했던 프랑스의 작가는 누구인가. 신소설 작가 李海朝의 번안소설

「鐵世界」(1908)를 통해 일찍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작가이다.

1. 줄 베르느
2. H.G. 웰스
3. 모리스 르블랑

출제 · 홍윤기

제37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모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7호(3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16통, 이중 정답은 92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제38호가 4월5일자로 늦추어진 관계로, 37호 정답발표가 늦어지게 된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월20일자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제38호 정답은 제40호(5월5일자)에 발표됩니다.

1. ③동백꽃

「춘희」의 주인공 마르그리트는 평소 늘 흰 동백꽃을 가지고 다녔으며, 생리 때는 붉은 동백꽃을 가지고 다녔다.

2. ①칼라일

3. ②에드거 알렌 포

포(Poe)는 「모르그가의 살인」 「황금충」 「마리 로제의 비밀」 등의 추리소설을 남겼으며, 도일(Doyle)은 셜록 홈즈를 주인공으로 한 일련의 추리소설작가로 유명하다. 한편 르블랑(Leblanc)은 「신사 강도 아르센 뤼팽」의 작가이다.

4. ③프랑스

당첨자

권명순(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95-1 시청각교육사내)

하수남(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4 시흥아파트 다동 304호)

김영애(서울 중랑구 면목3동 449-9호 21/2)

김경무(경남 창원시 상남동 66 한국기계연구소 내열재료실)

김환승(충남 아산군 배방면 후대리 148-2)